

“환경보호 實踐 의지를 보여주자”

(사)환경보호 국민운동 포천시지회 창립



(사)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포천시지회가 29일 창립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식은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기 입장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이진복 지회장 대회사, 송기태 중앙회 총재 치사, 박운국 포천시시장 격려사, 이강림 포천

시의회 의장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립식에는 송기태 중앙본부 총재를 비롯해 김대을 경기도 지부장, 의정부와 양주시, 연천군 등 인근 시군 지회장,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진복 포천시지회장은 대회사로써 “지난 세기 인류는 과학의 진보와 산업화를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산과 들이 훼손되고 물과 공기는 오염됐다”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새로워졌고 환경보존 없이는 국가경쟁력이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환경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회장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환경단체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가정은 식탁에서부터 각자의 사업장,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실천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삼선 해태 김으로 사랑 전달



박혜자 주부명예회원
포천시장부부

삼선 해태 김 유창호 사장님 고맙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타령만 일삼는 요즘을 예년처럼 나눔의 잔치에 유창호 사장님께서 동참해 주셨다. 돈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물량을 트러으로 하나하독 120여 박스를 내놓으셨는데 1박스 당 3박스를 넣은 포장으로 재 포장하여 호스피스 선교회 4박스(大), 사릉교회 4박스, 포천모현센터 작은마리아회 6박스, 지혜원 8박스, 포천동 바르게살기 12박스(大)를 기증했다.

바살협에서 발빠른 사람의 릴레이에 동참했다.

신북면 효사랑 2박스, 남사랑 2박스, 삼성당리 노인정 1박스, 군내면 생수의 집 3박스, 소흘읍 장군이네(창할잡이) 1박스, 신음동 원불교 군중당 2박스, 영북면 운전5리 노인정 1박스, 왕영순 어룡동 회장님의 전화 한 통의 고마움에 숨도 안 쉬고 달려가 5분대기조 비상 차량이 달려오고 공장에서 물건 받아 신고 그 날로 배송

을 끝냈다. 작은 박스인 줄 알고 승용차 2대로 들어갔다가 안돼 화물차량을 불러 가득히 싣고 나오면서 유창호 사장님께 고마움보다는 미안한 생각이 마음을 표현 할 수가 없었다.

원불교 포천교당에서는 군중들이 법회에 참석해 공부하러 오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부족한 예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예대학 박연지 학우(67세) 언니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까이 참여했는데 감사의 전화와 잘먹었다고 하는 교무님의 말씀에 또한 죄송하다는 말로 대답했다.

사실은 큰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인사 받을 때는 왜 그리 송구스러운지,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달려가 사랑의 배달원이 되고 싶다. 청정해역에 두고 고충산 김으로 맛깔스럽게 구운 삼선해태 김 많은 이용도 해주시고 유창호 사장님 해태 삼선 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추천! 한마당 이야기

熟年人生 十誠命 (나이 들어 대접받는 비결 열 가지)



이보용 본지전문위원

1정리정돈(clean up)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동안 누적된 생활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품품 귀품품 등도 연구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관리

의 제1조다. 2몸치장(dress up. or fashion up).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 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 해지기 쉽다.

3대의활동(move up) 집안에 집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모임은 물론 취미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약하게 된다.

4언어절제(shut up)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 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품격을 지녀야 좋은 말이다. 유모어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5자기기부(pay up). 돈이란 잃어든 재물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에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인승차하는 거지 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6포기와 체념(give up)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

식문제 등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 는 포기 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만하게 한다.

7평생학습(learning up).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게 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신경 긴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8낭만과 취미(romance up) 각박한 삶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고희와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춘풍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9봉사(service up). 평생 봉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평생을 지고 살아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라.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선진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10희심결심(mind up).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은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수도(正心修道)하고 평상심(平常心)을 늘 간직하라.

- 에필로그 - 늙어가는 세상에서 천대받기 싫다. 메리트가 적어진 것이다. 그만큼 더 노력하고 자기품위와 역할을 가다듬어야 한다. 시중에 나돌던 “늙어서 대접받는 일 끝까지 비결”(seven up)을 보고 느낀바 있어 새로 “숙년인생 십계명”을 만들어 좌우명으로 삼고자 한다.

(문의 011-342-5834)

본지 에세이 기고에 감사패 받아

윤순옥 전 포천의제21고문 문화친목회로부터



포천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있는 에세이에 감동 받은 친목단체에서 윤순옥 전 포천의제21고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6월24일 문화친목회 정시문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윤순옥 고문은 “그동안 사회활동을 통해 여러차례 감사패를 받았지만 신문에 연재한 글을 읽고 감동했다며

전달받은 감사패를 이번이 처음”이라며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난감했으나 받고 보니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문화친목회는 포천시 가산면 정교2리 용화동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든 친목회로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3개월에 1회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부상으로 이시형 박사의 ‘에이징 파워’라는 책과 함께 윤 고문에게 전달된 감사패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포천신문에 좋은 글을 올리

어 포천시민의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헌신 노력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친목회 발전에도 불심양면으로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회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한편, 윤 고문은 포천신문 제 352호(2006년9월11일자)부터 살아 가면서 느낀 소박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봉사와 사랑 로고 실천에 최선”

동포천로타리클럽 김영도 회장 취임

국제로타리 3690지구 동포천로타리클럽 2007-08년도 제3대 회장에 대국 김영도 회장이 취임했다.

29일 베이스타운에서 동포천로타리클럽 제2대 우주 김진우 회장이 임식과 제3대 김영도 회장 취임식이 거행됐다.

김영도 회장은 취임사에서 “동포천로타리클럽 탄생에 산파역을 해주신 아솔 이흥규 제1대 회장님과 전임 회장님 그리고 회원 및 영부인님들을 모시고 취임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머리속에서 생각하는 봉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함은 물론 실천에서 오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기존 회원의 탈퇴가 없도록 하고 1인2인 가입운동을 전개해 일기내 60여명 회원 증가, 조직관리는 회장이 솔선수

범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설정 등에 의한 계획수립, 회원들에게 업무 분담처리 및 성과에 따른 표창제 등을 2007-08년도에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제2대 김진우 회장은 이임사에서 “동포천로타리 회

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을 바탕으로 탄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면서 “2007-08년도 동포천로타리 클럽을 이끌어 갈 대국 김영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이 총력으로 화합하고 더욱 성장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봉사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동포천로타리 제2대 김진우(오른쪽)회장이 제3대 김영도(왼쪽) 회장에게 동포천로타리기를 전달하고 있다.

시인의窓

간이역

정 공 채 (시인)

피어나는 꽃은 아무래도 간이역 지나치고나면 아아, 그 도중에 꽃이 피어 있었던가 잠깐만 멈추어서 그때 펴 줄 것을, 살게 찬란한 그 햇빛을... 오랫동안을 걸어온 뒤에 돌아다보면 비탈어진 포도에 아득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꽃은 지고 지는 그 꽃에 미련은 오래 머물지만 저버린 꽃은 다시 피지 않는 걸 여에서 서로 즐긴 사람의 수포처럼 기억의 언덕 위에 잠깐 섰다가 흘러가버린 바람이었던 걸... 지나치고 나면 아아, 그 도중에 작은 간이역 하나가 있었던가 간이역 하나가 꽃과 같이 있었던가

<감상노트>

이것이 정공채 시인의 ‘꽃’이기도 하며 시와 미학의 구체적 변증법이다. 표현의 미학적 욕망이란 데리다(Derrida, Jacques)의 말을 빌리자면 “구조의 자유로운 유희에 대해 한계 부여하는 현존의 기원이자 중심이요 정수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자연에 인간의 문명과

사랑을 부여해 하는 상호 주관적인 시적 힘으로 적용함이다. 특히 정공채 시인이 사유하는 ‘꽃’의 미학은 바로 시인의 중심에서 영태 발화되는 생명 의 공명이며 예술의 몰부림이 된다. 나이가 살(필)의 원동력으로서 궁극적 휴머니즘의 확실한 증거이자 보증이 되는 것이다. 안 익 수(시인)

문학기행



박옥석 주부명예회원
기쁜마리아부부

6월23일 포천 문예대학 제4기 수강생들과 함께 문학기행을 떠났다. 대진대 정문 앞에서 만나 버스에 타고 춘천 방향으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시 낭송회가 열렸다. 포천문예대학 수강생 박혜자 포천신문 주부명예회자단 포천동지부장님이 제공한 김 박용의 시를 낭송했다. 김 박용의 시는 “조지문학의 공명이며 예술의 몰부림이 된다. 나이(살)의 원동력으로서 궁극적 휴머니즘의 확실한 증거이자 보증이 되는 것이다. 안 익 수(시인)

나 면사무소 앞 춘천막국수집에 도착해 음료수와 소주, 포천시 안유진 과장님이 모찌 인절미를 잔조해 주셔서 식사자리가 더욱더 풍성해 진 것 같다.

식사 후 김유정 문학촌을 관광하며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김유정 시인의 작품 소나비, 뽕뽕이 기막힌 두 여인의 인연으로 탄생했다는 유래가 새롭다. 기념촬영을 하고 머리로 마음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큰 마음의 부를 느껴 감사의 마음을 안고 발길을 뗐다.

가으로 문예대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글쓰기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비경을 아니지만 백일계곡을 지나는 멋진 여행이다. 화천만을 지

*용경자의 세상읽기 9

오이지

일년 중 오이가 가장 맛있는 계절이다. 값이 싸고 여느 과일 못지 않은 아삭하고 달큰한 이 맛!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능력부족이다. 주부의 손질이 바빠지면서 오이지결집, 오이소박이, 오이파클, 오이지, 녹각오이무침 등 다양한 모양새로 우리 식탁을 장식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 엄마도 텃밭에 오이 몇 그루를 심어 여름 내내 반찬 걱정 없이 생활하셨다. 그 중에서도 나는 오이지를 가장 좋아한다. 향이리 안에 오이를 차곡차곡 넣고 천일염으로 짭짤하게 간을 맞춘 후에 팔팔 끓여서 부어주면 된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 열을 정도 익히면 아삭하고 오들오들한 것이 여름 내내 우리식구의 입맛을 지겨운다. 그 위에 햇볕을 한껏 머금은 단단하고 납작한 물에 지푸라기를 엮어서 올려놓으면 무르지 않고

시원하고 개운한 것이 겨울철 동치미에 버금가는 맛이라 하겠다.

비싸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오이지에서 나는 어린 시절 엄마의 밤새를 느낀다. 여름철 더위에 지쳤을 때 얼음물에 띄운 오이지가 유난히 맛난 것은 그 옛날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엄마의 휴식이 느껴지기 때문이라. 자식들을 위해 산나물을 뜯고 삶아서 파졌던 엄마의 삶속에서 더운 이 여름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다. 나도 육심껏 오이지를 2접이나 담았다. 그리고 여기저기 나눠줄 호호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해

본다. 올 여름엔 오이지를 먹으면서 능히 더위를 이겨낼 수 있리라.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특별기고



최성영 포천우체국장

안녕하십니까? 포천우체국장 최성영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포천우체국을 이용하여 주시는 포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포천우체국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면서 지역주민의 사랑 속에 꾸준히 발전하여 17개의 관내우체국과 2개의 우편취급소에서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사설업체와의 물류경쟁, 은행, 보험사 등과의 금융분야에서의 경쟁 등 일반 국가기관과는 달리 민간기업과의 경쟁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고객서비스의 중요

고객보다 한 발 앞서가는 서비스

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창조적 경영과 고객감동을 경영비전으로 제시하고 고객만족도평가 전국 최우수 우체국을 목표로 15만의 포천시민이 성원해 주고 사랑해 주는 우체국, 고객을 감동시키는 우체국, 고객이 이웃에게 추천해 주는 우체국으로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수준과 CS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포천관내 모든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토론과 고객응대에 대한 미비점을 피드백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우체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반기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고객보다 한발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학습하고 연구했던 부분을 조직개편과 맞물려 고

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한 직원들을 새로운 편제에 맞춰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서비스 혁신』,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편리한 우체국을 위한 『고객시스템 혁신』, 자긍심 있고 자랑스러운 우체국을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고객가치를 높여주는 우체국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 혁신』을 주제로 하여 고객만족경영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여러분에게 최고의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이 되어 여러분의 기대와 호응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체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 하였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즐겁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포천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

전농 포천시 농민회 사무실 개소식



전농농민회 경기도연맹 포천시농민회(회장 서재성)는 6월29일 영북면 운원리 축협 3층 사무실에서 농민회 회원 및 내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서재성 농민회장은 인사말에서 “축협 양기원 조합장님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축협 3층에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농민과 포천시 농업발전을 위해 힘을껏”이라고 밝혔다.

이수기 관인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포천시 농민을 위해 조합과 농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주시는데 대해 감사 드리고 늦게나마 사무실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농민과 농협이 한 목소리를 낼 때만 살길이라 여긴다”고 말했다. 양기원 축협 조합장은 “축협도 축산단체이지만 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사무실이 입주하여 개소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주부명예회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